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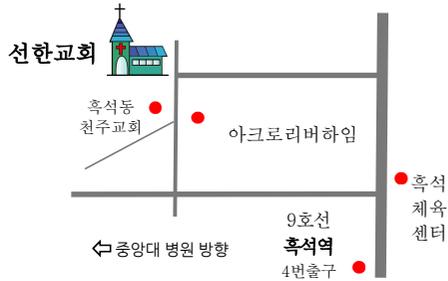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안나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교육목사 정용준 협동목사 홍진표 교육전도사 윤영 협력전도사 오효남	국내선교사 협력교회	오인숙, 한배선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조계승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편도선,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천사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20장 (통일찬송가 41장)	
교독문	교독문 4번 (시편 5편)	
찬양과 경배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	
기도	윤호중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장 8~11절	삼하 5:1~5
설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정용준 목사)
헌금	헌금송 : 바울회	다 함께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인도자
파송의 노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일오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양	Joy And 찬양팀
기도	오세일 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4장 16~26절
설교	타락한 세속 문명의 시작 (임춘배 목사)
찬양	258장 (통일찬송가 190)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일예배

인도: 임춘배 목사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9편 73~8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오늘 점심 봉사는 요셉회입니다.
 - 주차안내
 -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부서사역조정**

오늘 2부 예배 후 부서 사역조정이 지하 2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 월삭새벽예배**

3일(월) 오전 5시 30분 월삭새벽예배 (주관: 제직회)
총동원금요기도회
 7일(금) 오후 8시 30분 총동원금요기도회 (주관: 청년부)
-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주제 :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기간 : 2/2(주일)-2/23(주일) 4주간 / 오전 11시~4시 30분
 장소 : 선한교회 지하2층 유초등부
- 선한교회 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2월 2일(주일)~16일(주일) 자정까지 2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kimkiho10000@naver.com
 - 서면제출: 장학금 안내 서류 및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구제장학부 김기호 집사(010-3746-4528)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되도록.

찬송 :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통478)

본문 : 시편 1편 1~6절

말씀 :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신령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보편적인 복의 근원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참된 복의 근원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오는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사 40:8)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하듯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영적인 번영을 누립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먼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고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마 7:13~14)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 2:8~11)

서 론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 서머나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1. 서머나 교회의 상태

- (1)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8절)
- (2) 주님의 칭찬: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9절)
- (3) 주님의 권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10절)
- (4) 주님의 약속: ①‘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10절) ②‘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11절)

본 론

2. 교훈

- (1)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은?
- (2)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내용은?
- (3)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 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2부 예배 헌금	윤국로 집사	심지숙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오세일 권사	김은희 권사
주 방 봉 사	요셉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날짜 : 2월 3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본문	요한복음 9:35~41		
말씀요약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이를 쫓아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는 인자가 누구인지 물으며 인자를 믿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 말씀하시니 그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믿음을 고백하는 치유받은 맹인 9:35~38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주님이 확신을 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목상질문 2	영적 맹인으로 남은 바리새인들 9:39~41 예수님이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두 진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9장 39절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각을 가졌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영적 맹인의 눈을 밝히셔서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적 시야는 선명해지지만, 교만한 자의 영적 눈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여기던 자들의 맹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종교적 편협함으로 인해 돌아보지 못한 이웃은 없는지요. 가식적인 거룩함을 버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참된 거룩함을 살아 내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선한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	
찬양과 기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새 570), 주 나의 모습 보네
목상 나눔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p>한 목회자가 저녁 집회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던 늦은 밤, 그는 피곤한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났다는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빨래를 널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여...!”라고 외치며, 피곤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빨래를 널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공간에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에 주님이 손을 포개셔서 함께 빨래를 널어 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이 설교하면서 전했던 ‘우리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 함께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나누어 보세요.</p>
말씀나누기	요한복음 10:11~21
목상포인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 답변을 넘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깊고 친밀한 관계로 백성을 초대합니다. 구원은 단지 죽은 후 심판이 아닌 천국이 보장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져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17:3).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목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용하기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저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성경으로 변론하시는 예수님	날짜 : 2월 7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본문	요한복음 10:32~42		
말씀요약	신성 모독을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 함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아버지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잡으려 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목상질문 1	신성 모독에 대한 반론 10:32~36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셨나요? 절대 권위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분별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호소 10:37~42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과 재판관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예우를 받았습시다(시 82:6). 예언자나 재판관으로 세워진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직무'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는 예언자, 공의로운 재판으로 질서를 세우는 재판관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행할 때 필요한 자질은 '성결'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결함으로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매일 Q.T.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짜 : 2월 4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본문	요한복음 10:1~10		
말씀요약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목자십니다.		
목상질문 1	양의 우리 비유 10:1~6 예수님의 비유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떤 목자 혹은 어떤 양이 되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구원과 생명을 주는 목자 10:7~10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요한복음 10장 10절 누군가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친구'와 '도둑'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선한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앗아 가고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악한 도둑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때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내적 교제가 느슨해지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결국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사람이 참생명을 누립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제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의 양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풍성히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생명 길로 인도받는 양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짜 : 2월 5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본문	요한복음 10:11~21		
말씀요약	삯꾼은 목자가 아니어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은 목숨을 다시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분쟁합니다.		
목상질문 1	선한 목자와 삯꾼 10:11~15 이리가 양을 물어 가려 할 때, 선한 목자와 삯꾼은 각각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생명 다해 돌봐야 하는 양 같은 지체는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10:16~21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10장 15절 '선한 목자'와 '삯꾼'은 양을 대하는 그의 태도로 구별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피고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데, 삯꾼은 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 합니다. 이런 차이점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헌신'과 '희생',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무책임'과 '비겁함'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께 속한 인생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시며 책임을 다하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목자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품길 원합니다. 그들도 주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도록, 그들을 목자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 Q.T.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날짜 : 2월 6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본문	요한복음 10:22~31		
말씀요약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자신들 마음을 의혹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목상질문 1	분명한 답을 달라는 유대인들 10:22~24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나요? 예수님에 관해 내가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신적 정체성을 알리시는 예수님 10:25~31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손이며, 신으로 추앙받던 애굽 왕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권능의 손입니다. 또한 불의한 제국 앗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심판의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제가 주님의 향기이자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 학교,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